희망을 찾아서

당당한 여자, 김기현의 발걸음

새해 첫날인 KBS 2TV '인간극장'의 '기현씨, 빛을 보다' 4부에 출연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희망을 전한 여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김기현씨. 방송을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는 그녀는 꿈많고 열정이 넘치던 열아홉 살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를 괴롭혔던 턱 부정교합 수술을 받던 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으리라고는 아무도 예기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상위 1%의 우수한 성적으로 연세대학교에 합격한지 꼭 다섯 달만의 일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을 지나 재활과정을 거쳐 지금의 당당한 기현씨가 되기까지 그녀 곁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과 그녀의 눈이 되겠다고 약속한 남편 관용씨가 있었습니다.

2년여간 미국 보스턴에서의 유학생활도 그녀의 남편 관용씨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학연수도 하지 않은 채 떠난 유학길,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는 전 과목 A의 성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재활상담을 전공했던 그녀는 시간제로 했던 재활상담사 일을 통해서 수업 중 배운 이론과는 또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은 지금도 그녀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지요."

그녀의 미국 생활에 또 다른 기적은 바로 아들 예승이를 얻은 것. 예승이를 처음 가졌을 땐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재롱도 못 보면 얼마나 슬플까 · · ·.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는 예승이 웃음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예승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엄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마치지 못한 박사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올해 5월이면 다시 미국으로 떠나는 그녀에게 지금은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건 그녀를 지켜봐 주는 관용씨가 있고 그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는 예승이가 있기에 그 시작이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도 실명이라는 커다란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전 다른 시각장애인분들도 시각장애인 사회가 아닌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통의 길도 빨리 열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시각장애라는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설명

사진1 : 김기현씨가 펴낸 책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만지다'
사진2 : 남편 관용씨 아들 예승이와의 단란한 가족사진
사진3 : 연세대학교 입학사진
사진4 : 관용씨와 결혼
사진5 : 미국 유학생활
사진6 : 사고 후 재활 과정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의자를 권할 때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 당기지 마세요'
시각장애인의 손을 의자의 뒷부분에 살짝 대어 주세요. 의자의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습니다. 책상과 함께 있는 의자에 앉게 될 경우 한손은 의자에 다른 한손은 책상을 닿게 해주시면 바르게 앉을 수 있답니다.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5권 2호 통권 103호

2009년 2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룸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시계방향 : 상명대학교와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사진전시회'마음으로 보는 세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스쿨
보이스아이 라이프를 시연하는 모습
케이제이아이피이넷스인터내셔널 저소득 시각장애가정에 물품지원

손으로 보는세상

2009. February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최악의 취업난 속 '공직의 꿈' 이뤄낸 장애인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으로 훌로서기에 성공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중증장애인 특채를 통해서 채용된 18명의 장애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번 시험은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연구 • 근무 경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708명이 응시해 평균 39.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 5명, 9급 9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이고,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8명, 신장장애 5명, 청각장애 • 시각장애 • 뇌병변 • 호흡기장애 • 국가유공자 각 1명입니다.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제도에 대하여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시각장애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문의 빗장이 열리데 환영하면서도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합격한 18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 1명이 선정되어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공직진출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화면해설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각종 보조기기를 사용해 각 직업 영역에서 충분히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비시각장애인과 함께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 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막연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고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해외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고학력 시각장애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은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실행해야할 과제입니다. 이번 특별채용을 계기로 공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에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능력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